



#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홍성태/편집인 : 김재원/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전화 02)794-4145/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 회원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회원은 2014년 9월 현재 236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81,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분야 학술지 44)이며, 개인회원은 45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 문화사), 메드소프트,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엔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Cactus communications Korea, Google Inc.,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NHN(주)XLink Co., Ltd., 총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 의편협 CrossRef 워크숍 개최

### 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이은소



지난 7월 1일(화) 오후 3시30분~6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의편협 회원 학술지 편집인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CrossRef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약 210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CrossRef Product Manager인 Rachael Lamney가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How to and What to Look for, and Future Plans for iThenticate developments, Current CrossRef Services and

What's Coming Next의 주제로 CrossRef 서비스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CrossRef Text와 Data Mining Services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CrossCheck 사용 경험이 풍부한 의편협 단체회원 학술지 중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편집위원장(이윤석 교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위원장(송정환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Archive of Plastic Surgery 편집간사(이장현 교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각 학술지에서 CrossCheck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발표한 학술지에서는 모두 CrossCheck 사용이 논문 심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CrossCheck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제3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본 협의회에서는 2014년 8월 23일(토) 서울대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제3회 논문작성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Ten kee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표지, 제목, 초록 작성',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참고문헌 작성과 정보검색', '글쓰기의 어려움, 이유와 극복 방안, 효과적인 논문 작성의 순서와 팁', 'Table, figure 및 결과 작성요령', '의학논문 작성에서 보는 흔한 영문 오류', '심사자는 논문 심사에서 어떤 것을 보는지'라는 주제 아래 총 8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학술지 편집인과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2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의편협 교육행사 일정

|                     |                  |                       |
|---------------------|------------------|-----------------------|
| · 2014 ORCID 워크숍    | 2014년 10월 31일(금) | 신촌 세브란스 암병원 서암강당      |
| · 2014 의편협 편집인 아카데미 | 2014년 12월 5일(금)  | 연세의료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 |
| · 제4회 논문작성 워크숍      | 2015년 1월 31일(토)  | 충남대병원 노인보건센터 5층 강당    |



### 과편협 교육행사 일정

|                              |                         |              |
|------------------------------|-------------------------|--------------|
| · Elizabeth Wager초청 특별강연     | 2014년 10월 28일(화)        | 과총 지하 1층 회의실 |
| · Life Science 학술지 원고편집인 워크숍 | 2014년 11월 19일(수)~20일(목) | 과총 지하 1층 회의실 |
| · Novice editor's workshop   | 2014년 12월 4일(목)~5일(금)   | 과총 지하 1층 회의실 |



### 의편협 단체회원 MEDLINE, SCIE 등재

MEDLINE 등재: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Korean Journal of Urology

SCIE 등재: International Neurology Journal,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Korean Circulation Journal

#### 1. Korean Journal of Urology의 MEDLINE 등재 소감

Korean Journal of Urology (KJU)는 지난 7월 1일 미국국립의학도서관 (NLM) 으로부터 MEDLINE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KJU가 MEDLINE 등재신청을 한지 꼭 1년 만에 받은 결과입니다.

KJU는 대한비뇨기과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2010년에 영문화되어 Pubmed, Pubmed Central 등재지가 된 후로 Urology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학술지가 되기 위해 편집위원회 규정, 투고규정, 심사와 편집, 학술지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학술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층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부분

과학회인 대한내비뇨기과학회와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2014년부터 통합하여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운영부문에서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고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meeting을 매년 국외에서 개최하여 학술지 운영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심사부문에서 출판윤리심사 전담 editor제를 운영하며 투고된 논문의 중복게제여부는 CrossCheck로 screening 합니다. 논문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Section editors와 Biostatistics consultant가 있습니다. 편

집부분은 Manuscript editor, Language consultant 제도를 운영하며 정지출판을 위해 Forthcoming issu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홈페이지는 online publication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Video in Urology를 신설하여 video clips이 있는 논문게재가 가능하게 하고 Video interview with Author 코너에서 저자가 직접 논문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끌게 하였습니다.

KJU가 MEDLINE에 등재됨으로서 MeSH 부여에 의한 KJU 검색 및 인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지의 위상을 인정받아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KJU의 당면목표는 SCIE 등재지가 되는 것이고 중장기 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Urology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술지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술지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논문심사와 빠른 게재를 통해 최신 비뇨기과학 분야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도록 편집진은 꾸준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편집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비뇨기과학회와 KJU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rean Journal of Urology 편집위원장 박광성

## 2. International Neurology Journal의 SCIE 등재 소감

2009년 말 학회에서 국문을 영문으로 바꾸는 것을 무작정 허락 받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가 2010년 본격적으로 의편집에서 주관하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학회지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의편집이 없었다면 저희가 SCIE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을 거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회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자꾸 펼쳐보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용하게 하는 학회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지표인 인용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회원에게 부탁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주제의 논문을 실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인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논문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주제의 논문이 무얼까 고민도 했었는데, 쉬운 길은 비뇨기과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의 논문을 부탁해서 실는 것이지만, 그 보다는 비뇨기과내 부족한 주제를 파악해서, 한국내 정말 실력있는 기초학자들에게 부탁해서 그 주제의 논문을 받고, 이를 비뇨기과 사람이 editorial을 통해서 비뇨기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기초논문을 중심으로 임상논문들이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이 기초논문이 인용되었고, 최근 저희 인용지수 1.5 중에서 80%가 외국인이, 20%가 국내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저희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회지는 항상 물이 흐르듯이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노력하면 높은 곳으로 가든지 방심하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회지들이 SCIE가 되고 난 후 오랫동안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학회지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예정이며, 비뇨기과내 두번째로 인용지수가 높은 Journal of Urology를 목표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학회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International Neurology Journal 편집위원장 이택



## JCR 2013: 의편집 회원 학술지의 SCI Impact Factor 현황

2013 SCI impact factor가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2013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의편집 회원 학술지의 현황입니다.

| Journal Title              | ISSN      | Total Cites | Impact Factor | 5-Year Impact Factor | Immediacy Index | Citable Items | Cited Half-Life |
|----------------------------|-----------|-------------|---------------|----------------------|-----------------|---------------|-----------------|
| Allergy Asthma Immunol Res | 2092-7355 | 389         | 3.084         | 2.876                | 0.298           | 57            | 2.5             |
| Ann Dermatol               | 1013-9087 | 553         | 0.954         | 0.905                | 0.141           | 71            | 2.9             |
| Ann Lab Med                | 2234-3806 | 131         | 1.481         | 1.481                | 0.239           | 67            | 1.4             |
| Asian Nurs Res             | 1976-1317 | 71          | 0.418         | 0.516                | 0.000           | 29            | -               |
| Biomol Ther                | 1976-9148 | 211         | 0.841         | 0.605                | 0.071           | 70            | 2.5             |
| Cancer Res Treat           | 1598-2998 | 584         | 2.975         | -                    | 0.500           | 46            | 3.5             |
| Clin Exp Otorhinolaryngol  | 1976-8710 | 247         | 0.835         | 1.089                | 0.038           | 52            | 3.6             |
| Exp Mol Med                | 1226-3613 | 1,931       | 2.462         | 2.322                | 0.394           | 66            | 5.6             |
| Gut Liver                  | 1976-2283 | 572         | 1.494         | 1.437                | 0.149           | 114           | 3.1             |
| J Adv Prosthodont          | 2005-7806 | 111         | 0.631         | -                    | 0.071           | 70            | 2.9             |
| J Breast Cancer            | 1738-6756 | 261         | 1.317         | 0.822                | 0.154           | 65            | 2.5             |

|                            |           |       |       |       |       |     |     |
|----------------------------|-----------|-------|-------|-------|-------|-----|-----|
| J Clin Neurol              | 1738-6586 | 472   | 1,807 | 1,875 | 0.405 | 42  | 3.8 |
| J Gynecol Oncol            | 2005-0380 | 390   | 1,600 | -     | 0.500 | 48  | 3.4 |
| J Korean Acad Nurs         | 2005-3673 | 363   | 0,359 | 0,391 | 0.049 | 81  | 5.7 |
| J Korean Med Sci           | 1011-8934 | 3,431 | 1,253 | 1,256 | 0.188 | 292 | 5.7 |
| J Korean Neurosurg Soc     | 2005-3711 | 904   | 0,522 | 0,815 | 0.032 | 187 | 4.3 |
| J Korean Surg Soc          | 2233-7903 | 282   | 0,616 | -     | 0.062 | 112 | 2.5 |
| J Neurogastroenterol Motil | 2093-0879 | 422   | 2,698 | -     | 0.864 | 59  | 2.4 |
| J Vet Sci                  | 1229-845X | 805   | 1,142 | 1,317 | 0.029 | 70  | 5.9 |
| Korean J Lab Med           | 1598-6535 | 284   | 1,309 | 0,655 | -     | 0   | 4.2 |
| Korean J Orthod            | 2234-7518 | 111   | 0,370 | 0,328 | 0.028 | 36  | 5.0 |
| Korean J Parasitol         | 0023-4001 | 952   | 0,965 | 1,214 | 0.151 | 119 | 6.9 |
| Korean J Physiol Pharmacol | 1226-4512 | 383   | 1,262 | 1,095 | 0.133 | 75  | 3.3 |
| Korean J Radiol            | 1229-6929 | 1,177 | 1,807 | 1,907 | 0.160 | 119 | 4.6 |
| Nutr Res Pract             | 1976-1457 | 424   | 1,129 | -     | 0.159 | 69  | 3.4 |
| Psychiatry Invest          | 1738-3684 | 397   | 1,149 | 1,409 | 0.175 | 63  | 3.4 |
| Yonsei Med J               | 0513-5796 | 2,257 | 1,263 | 1,293 | 0.132 | 227 | 6.5 |



## 유럽편집인협회(EASE)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의편협 회장 홍성태

지난 6월 13-15 일에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의대에서 개최된 제12차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EASE) 학술대회와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스플리트는 로마황제의 궁전이 남아있는 발칸반도 해안가에 있는 아름다운 고대도시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EASE 회원으로 가입하고 학술지 European Science Editing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중인데다, 금년부터는 그 학회 학술지 편집인인 Dr. Armen Yuri Gasparyan이 제가 편집하고 있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의 색션편집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서로 간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시간을 내어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EASE 회장인 Dr. Joan Marsh (Lancet Psychiatry 편집인)도 지난 12월에 서울에 다녀가고 그 당시 서창욱 회장님과 같이 만나서 교류한 인연도 있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본 학회 앞에 교육목적의 워크숍으로 'Application of advanced IT to scholarly journal publishing'과 'Statistics for editors'를 개설하였고, 학회 뒤에 'How to be a successful journal editor'와 'Editing non-native scientific English' 워크숍을 개설하여 참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루 반 일정인 'How to be a successful journal editor'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Pippa Smart 리는 영국인이 주관하였는데,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토대로 편집인의 역할에 대하여

실제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 분은 이러한 워크숍이 전문인 사람입니다. 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물으면서 토론하는 형식이 새로웠습니다. 수강생이 14명으로 적어서 가능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보완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워크숍을 통해 현재 대한의학회 학술지 편집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편집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큰 소득입니다.

총회와 학술대회는 개회식과 특강(Keynote lecture) 'What is science?' (Sir Tim Hunt, UK)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 초청강연(Plenary)으로 'Inter/multi/trans-disciplinarity: the challenge for publishing' (Milena Zic-Fuchs, Croatia), 'Research in editorial matters' (Jacob Rosenberg, Denmark)이 있었습니다. 일반 구연 연제는 그 외에 Parallel sessions로 다양한 주제를 모아서 발표하고 토론하였는데 그 주제는 'Social media in publishing,' 'Readability - English as an alternative language,' 'Gender policy in science editing and publishing,' 'Ethics - case studies from COPE,' 'Publishing metric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editors,' 'Reporting guidelines,' 'Evaluating editorial research and collaboration among editors' associations' 등으로 다양하였습니다.

작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미국 주도의 Peer Review Congress와는 많이 다르게 일반 연구연제 발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연제가 편집인 대상 교육위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참석 인원도 100 여명으로 단출하고 대부분이 크로아티아와 인근 발칸반도 국가의 편집인들이었습니다. 구연 연제의 내용을 보면 영국인들이 주변 유럽국가 편집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학회에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회장 하종규 교수, 운영위원장 허선 교수, 윤리위원장 황은성 교수가 참석하였고, 관련 업체에서 조혜민 인포루미 대표, 엠투커뮤니티 조운상 부장, 카투스코리아의 이상현 과장과 직원 한 명이 참석하여 발

칸반도에서 한국 편집인 위상을 과시한 셈입니다. 엠투커뮤니티는 공식 대회 후원기관으로 등록하였고 허선 교수가 주관한 학술지 디지털정보 가공 IT 워크샵에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EASE 사람들이 미국사람들보다는 가족적이고 우리의 성과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더 개인적으로 호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많이 발표하는 미국의 Peer Review Congress에 비하면 지적인 층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 이춘실 교수 CrossRef Board of Directors Member 위촉

이춘실 교수(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가 의편협 대표로 CrossRef 의 Board of Directors에 추천되어 이를 수락하였

으며 Text and Data Mining Committe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APAME Convention 2014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 의편협 국제협력위원장 서정욱



APAME Convention 2014 (아시아 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4 학술대회)와 제1차 몽골 의학

논문작성 워크샵이 2014년 8월 13~1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16개국 8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몽골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MAMJE, 회장: P. Nymadawa)가 주최하고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와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SEARO) 및 몽골사무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의편협 임원을 중심으로 12명 - 홍성태, 권오훈, 함창곡, 서창욱, 서정욱, 오세정, 김성훈, 허선, 서동훈, Allison Alley, 박은선, 고진강 -이 참가하였습니다.

학술세션에서 총 24개 구연과 10개의 포스터가 발표되었고 한국 참가자가 7편 구연과 3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습니다. 학술세션은 지식공유, 의학학술지 출판, 학술논문의 질적 향상, 학술지의 평가, 세계보건 학술문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APAME 초대 회장 함창곡, 현 회장 Kiyoshi Kitamura, 차기 회장 Jose Lapena, MAMJE 회장 Nymadawa 등이 적극적으로 연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

하였습니다. 대회 전인 13~14일에 있었던 의학논문작성 워크샵에서는 국내에서 홍성태 의편협 회장이 연자로 참여하였고 40명의 학술지 편집인이 19개의 강의와 4회의 그룹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5일 열린 서태평양지역 인텍스메디쿠스(WPRIM) 학술지 선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학술지 10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피지, 일본의 학술지 각 1편 등 14편의 새로운 학술지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WPRIM은 575개 학술지, 521,367편의 논문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Jose F. Lapena(필리핀) 부회장 서정욱(한국), Kiichiro Tsurumi(일본), Dai Tao(중국) 사무총장 Wilfred Peh(싱가포르)을 선임하였습니다. Editorial Policy and Ethics 위원회는 Looi Lai Meng(말레이시아), Sirajul Islam Molla(방글라데시); IT and Library 위원회는 Chinmay Shah(인도), Fang An(중국); Education 위원회는 Merlita Opana(필리핀), Rajeev Kumar(인도)를 각각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새로 Ad hoc Committee for APAMED Central을 만들어 권오훈(한국), Amit Joshi(네팔)를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로써 APAMED Central은 APAME의 한 기능으로 권오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APAME 학술대회가 8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WAME 학술대회가 10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됩니다.





## 제32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2013년 12월 12일(목)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교수회의실에서 제 32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평가회에는 KoreaMed에 미등재된 학술지 중 6종(수면, Brain Tumor Research and Treatment, Biomolecules & Therapeutics, Clinical Nutrition Research,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지,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5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평가 점수와 심사총평은 지면관계상 해당학회에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 제33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2014년 7월 10일(목)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교수회의실에서 제 33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평가회에는 KoreaMed에 미등재된 학술지 중 10종(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한국간호교육학회지, 한국임상약학회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Natural Product Sciences, 기초간호사연구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5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 1.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평점: 3.32)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년 2회 발행됩니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4년 4월호(11권 1호)로 원저 8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 목차, 관련란, 투고규정 등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투고규정에서 논문 작성요령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논문 제목과 저자명 표기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이 일치하지 않은 논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논문에 원저 또는 종설 등 논문 형태를 기술하지 않고 있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은 오류 없이 잘 관리되었습니다. 본문은 투고규정대로 체제가 잘 유지되어 있으며 큰 오류는 없으나, 영문 대문자/소문자 사용과 한글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한 논문이 있습니다. 표와 도형그림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표에서 가로줄을 사용한 논문,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 오자가 있는 논문 등이 있으며, 도형그림에서도 약어해설을 누락한 논문이 있습니다. 관련란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의 주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

며, 투고규정의 보완과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평점: 3.13)

한국간호교육학회지는 한국간호교육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년 4회 발간되며, 금번 평가대상은 2013년 5월호(20권 2호)로서 원저 18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 도안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따르고 있으며 무난한 편이나 뒷 표지의 논문 제목에서 오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투고규정은 논문 종류별 작성요령과 제목 작성요령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고 오지도 발견되지 않으나 논문에 연속하여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논문 제목과 저자명 표기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저자소속기관 표기에서 도시명과 국명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논문에 원저 또는 종설 등 논문 형태를 기술하지 않고 있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은 투고규정대로 체제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오자가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본문의 체제가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목록에서 투고규정과 다르게 영문이 아닌 한자로 표기하였거나, 관·호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논문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투고규정이 모호한 탓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가로줄이 있는 논문이 있고, 심볼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이 또한 투고규정에 명확한 기술이 없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란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의 주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편집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며,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The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 (평

#### 점: 3.43)

대한체담도학회의 공식학회지로 매년4회 발간되며 심사대상이 된 19권 2호(2014년 4월)에는 종설 3편, 증례 7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대표적 병변을 중심으로 중간 톤으로 배색하여 눈이 편안하게 디자인 되어 있고 QR 코드를 게재한 것은 좋아보입니다. 관련 관리 페이지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영문화를 준비 중이어서 기존의 국문 투고규정과 영문 투고규정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데 둘 사이의 내용에 일부 상이점이 있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점입니다.

다양한 국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고 국내 참고문헌을 비교적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점입니다.

페이지 위에 표시된 논문의 요약제목에 오자가 발견되는 것, 논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첫 페이지에서 일부 형식이 논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 게재된 논문중 종설이기는 하였으나 투고규정에 규정된 200 단어를 초과하는 논문이 있는 것 등은 아쉬운 점입니다. 참고문헌 오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향후 원고 편집인의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잘 정리되고 관리되어 있었으나 여러 항목에서 많지는 않지만 오류가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향후 개선되면 학회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평점: 3.86)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의 공식학술지로 기존에 한국영양학회영양학회지였던 것을 향후 영문화 전환을 대비하여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연 3회 발간됩니다. 심사대상이 된 6권 1호(2014년 4월)에는 종설 3편, 원저 4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논문 표지의 디자인과 배색은 세련되어 보였고 전반적인 편집은 우수합니다. 영문화를 준비 중이어서 기존의 국문 투고규

정과 영문 투고규정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고 제반 사항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오자가 난 것은 향후 수정되어야 할 점입니다.

국내 논문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참고문헌 오류도 적으며 간기도 잘 지켜져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학술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DB 등재 준비를 위해서 준비중인 NLM catalog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NLM에 납본하여 기록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5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평점: 3.10)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4회 발간되며 심사대상이 된 14권 1호(2014년 3월)에는 종설 1편, 원저 2편, 증례 2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전반적인 편집은 우수하였고 책등에 페이지 표시를 추가하면 책꽂이에서 찾아볼 때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고규정에 저자규정, 윤리규정 등이 빠져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표의 내용에 제법 오자가 발견되고 표의 설명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향후 편집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리 조직 사진이 흑백인데 콘트라스트가 낮아서 이상 소견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흑백 인쇄를 유지한다면 편집과정에서 명도,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서 좀 더 선명한 사진으로 인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LM 납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점, 학회지 공식 약자가 NLM 약자 규정을 따르지 않는 점은 국제적 DB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편집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가대상이 된 학술지 중 유일하게 참고문헌 오류가 없는 것은 매우 우수한 점입니다.



## 제2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결과

의편집에서는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KoreaMed 등재 후 7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9일(목)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에서는 14종(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잡지, 소아외과, 신경정신의학, Anatomy &

Cell Biology, Immune Network, Journal of Rheumatic Disease, Neonatal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Critical Care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Ultrasonography)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10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평점 3.0 미만을 획득한 4종은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점수와 심시총평은 지면관계상 해당학회에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 2014년도 하반기 평가회 일정

제13 차 KoreaMed 등재 7년차 의학학술지 제평가회: 2014년 11월 개최예정

제34 차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4년 12월 개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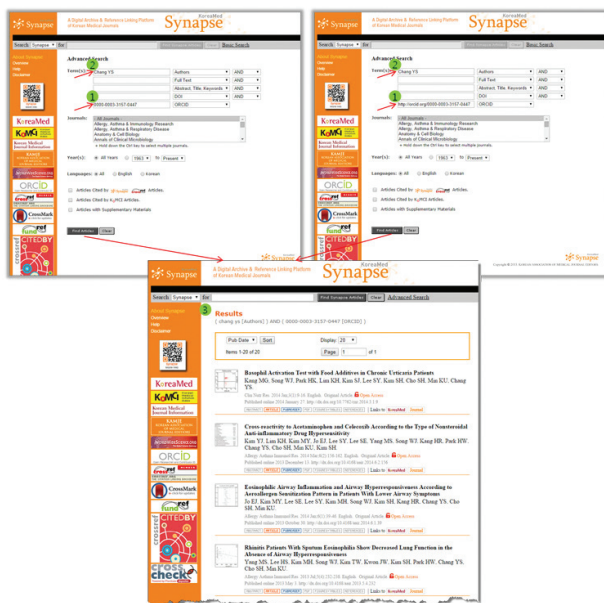
## KoreaMed Synapse: ORCID와 저자명 검색기능 개선

### 1. KoreaMed Synapse: ORCID 검색

Synapse의 고급 검색 (Advanced Search) 에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entifier) 검색 필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림 1).

ORCID 번호 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그림 1의 ①), 저자명과 함께 ORCID를 AND 조합하여 검색하면 (그림 1의 ②), 같은 이름 (또는 initial) 을 가진 다른 저자의 논문은 제외하고, 그 ORCID를 가진 저자의 논문만 검색이 됩니다 (그림 1의 ③).

그림 1. ORCID 검색: Synapse Advanced Search



### 2. KoreaMed Synapse: 저자명 검색 (ORCID로 구분)

Synapse에서는 각 논문 레코드 화면에 니열된 저자명을 누르면 (그림 2의 ①), ORCID를 이용하여 Synapse에 수록된 그 저자의 다른 논문들을 검색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림 2의 ②).

저자명과 저자 initial 은 spelling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도, 많게는 수백 명의 다른 저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ORCID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저자고유 식별 기호"입니다.

Synapse에서는 ORCID 번호로 구분하여 저자명 검색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자명 검색을 하였을 때 저자명 또는 저자 initial 이 같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저자의 논문인 것들이 함께 검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의학 논문에서 ORCID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직 대부분의 저자명에 검색 링크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ORCID를 통하여 정확한 저자명 검색이 되는 논문이 점차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림 2. 저자명의 ORCID 검색 링크가 활성화된 논문과 저자명 (ORCID) 검색 결과

